

월정사 "전면발굴" 요구 문화재청 "부분 조사만"

18일 학술세미나 열어 팔각구층석탑 '조명'

월정사 땅속 1m '숨겨진 진실'

구층석탑 기단석·석조좌상 좌대 발견 가람양식-역사 밝히는 단서될 듯



월정사 대웅전과 마주하고 있는 팔각구층석탑 앞쪽에서 기단석과 좌대가 발견됐다.

강원도 월정사 경내 1미터 땅속에서 팔각구층석탑(보물 제48호)의 기단석과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의 좌대가 발견되면서, 월정사 경내 발굴 문제가 정점으로 떠올랐다.

한서대 예술문화보존처리연구회가 보살상 보수 과정에서 발견한 이들 유물은 신라·고려·조선시대에 걸친 월정사의 역사와 가람 양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월정사는 이러한 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 경내 '전면' 발굴을 희망했으나, 문화재청은 "석탑과 보살상을 둘러싼 보호 난간 인근 '부분'만을 발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월정사는 643년(선덕여왕 12년) 창건 이래 지금까지 8차례 이상 소실과 중건을 반복해, 사찰의 역사는 두고라도 석탑과 보살상을 제외하고는 유물조차 전해지지 않았

다. 따라서 유물 발견을 계기로 월정사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1미터 땅 속에도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6·25 당시 국군의 작전에 의해 월정사의 모든 전각과 문화재가 소실된 만큼, 당국은 '전면' 발굴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기단석과 좌대는 석탑과 보살상에 한정된 유물이지만, 월정사 사격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은 아니다"며 "부분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나올 때 발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분 발굴을 주장했다.

한서대 예술문화보존처리연구회가 기울어진 보살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살상 주변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발견된 기단석과 좌대는, 팔각구층석탑이 3단 기단 형식의

고려 초기 다각다층 석탑이며, 보살상은 탑과 함께 월정사에서 제작됐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다. 발견 당시 좌대는 지하 1미터 정도에 묻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이들은 비슷한 깊이에 묻혀 있던 석탑 기단석과 이어져 있었다.

한서대 측은 "편들이 세로로 길게 연결되어 있으며, 끝 매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보다 넓은 지역까지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편들은 월정사 앞을 일대 고리조각 사찰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라·고려·조선시대 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고, 불여탄 흙의 단층 등이 나와, 화재로 전소된 사찰 터에 흙을 덮어 다지

고 그 위에 사찰을 중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월정사는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18일 12시 오대산 호텔 세미나실에서 팔각구층석탑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에는 정영호(한국고원대 명예교수) 박사의 '한국미술사상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의의', 김순형(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관장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의 재검토' 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날 논문발표에 이어 석조보살좌상의 좌대 발견에 대한 중간 보고서와 1970년 석탑의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지수향방에 대한 현미경분석 결과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이 발표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경봉의 낙산사·송광사 편액

경봉 정석(鏡峰 靖錫·1892~1982)은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본명은 김용국(金龍國), 법호는 원광(圓光)이다. 경봉은 16세가 되던 1907년에 양산 통도사에서 성해(聖海) 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여, 정호 학밀(晴湖 學密)에게 사미계를 받았고, 해담 치익(海曇 致益)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내원사, 마하연, 해인사 등에서 참선 수행을 하였고, 통도사에서 만일염불회를



낙산사 흥련암 편액

송광사 설법전 편액

낙산사 흥련암 변죽없이 평판에 쓴 글

송광사 설법전 서법 매이지 않은 禪筆

설립, 지도하였다. 또 통도사 강원 원장, 통도사 주지, 조선불교 중앙선원장 이사장, 통도사 국학선원 조실 등을 지냈다. 경봉은 어려서부터 한문사숙에서 수학하여 한학과 글씨에 모두 능하였으며, 서법(書法)을 뛰어난 호방한 글씨를 주로 썼다. 그의 글씨는 1953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30여 년 간을 머물며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였던 양산 통도사 극락암(장수보각), <여류문> 편액을 비롯하여 양양 낙산사 <원통보전>, <흥련암>, 평창 월정사 <정법보각>, 순천 송광사 <설법전>, <수선사>, 여천 향일암 <영구암>, 양산 내원사 <선나원>, 산청 대원사 <방장산대원사>, <범종각>,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경주 불국사 <무설전>, <안양문> 편액 등 전국에 많은 사찰에 남아 있다. 양양 낙산사 <흥련암> 편액은 변죽을 따로 붙이지 않고 평판에

글씨를 새긴 것으로, '경봉(鏡峰)'이라는 관자와 '원광(圓光), 경봉(鏡峰)'이라는 도서가 있다. 이 편액은 1976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낙산사 원통보전을 복원하면서 <원통보전> 편액과 함께 경봉의 글씨를 받아 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원통보전> 편액과 마찬가지로 혼일(漸進)한 맛을 풍기는 행서이며, 필획을 두껍게 두고 글자의 균형은 위를 넓게 아래를 좁게 하였다.

순천 송광사 <설법전> 편액에는 관자는 없으나 액판 좌측에 '원광(圓光), 경봉(鏡峰)'이라는 방인 도서 2개가 있다. 이 편액의 글씨는 경봉이 1968년 당시 송광사에 주석하던 구산(九山)의 부탁으로 <수선사> 편액과 함께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후중(厚重)한 맛을 풍기는 행서로, 서법에 매이지 않고 뜻을 살려 쓴 선필(禪筆)이다. 안평원(대하불교진흥원)

학술단신

불전연구소 학술세미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20일 오후 2시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불전전산화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보광 스님의 한국불교전사의 자료적 가치, 이해은 교수의 '전자문화지도에서 불전전산화 작업의 역할', 이종철 교수의

'다언어 하이퍼텍스트구축의 사례 연구' 등이 발표된다. (02)2260-3504

한국선학회 월례발표회

한국선학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부산대 인덕관 소회의실에서 10월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이번 발표회에는 김준호(부산대 강사) 박사가 '초기 불전에 나타난 지관개념'을, 윤산(운문사 강사) 스님이 '원인론'의 인간관 연구'를 발표한다. (02)2260-3135

"전통사찰 869곳"

문화부 '사찰현황' 발간

200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총 869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장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도는 경상북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전통사찰현황>에서 밝혀졌다.

<전통사찰현황>에 따르면 서울 55곳, 부산 35곳, 대구 19곳, 인천 8곳, 광주 5곳, 대전 5곳, 울산 11곳 등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전통사찰은 총 13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62곳으로 가장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105곳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경기도 89곳, 경상남도 88곳, 전라남도 80곳, 충청북도 80곳, 충청남도 78곳, 강원도 42곳, 제주도 6곳으로 나타났다.

종단 및 법인별로 보면 조계종이 701곳으로 단연 우세를 보였으며 태고종이 92곳, 법화종이 23곳, 선학원이 11곳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통사찰 중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은 381곳이며 소장하고 있지 않은 사찰은 488곳이다.

오종욱 기자

가상 공간에 '쌍방향 불교공동체'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응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교수는 '인터넷 상의 종교활동 실태와 포교방법 연구'라는 논문에서 "교리나 행사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전달형' 사이트에서 벗어나, 불자네트워크의 심신을 돌아주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형'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요즘의 네티즌은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즐겨 찾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교공동체의 모델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에 주목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에는 총 21만여 개의 카페가 있다. 이중 종교와 관련된 카페는 약 1만4천348개(2000년 10월 1일 기준)나 되는데, 이것은 2천5백여 개(10월 1일 기준)에 불과한 기존의 전달형 종교 사이트 수와 크게 비교된다.

김 교수는 결론에서 "인터넷상의 쌍방향 의사전 달체제는 약 3년 정도면 일반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문인력의 부재, 종단 및 불자들의 관심 저하 등 불교 정보화의 벽을 허물고, "가상 공간에서의 포교 대계를 세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인터넷 포교 쌍방향 통신 서두르자"

김응철 교수 주장

회암사터 국내최대 온돌 발견

아자방 구조... 승방추정

태조 이성계의 무학대사가 머무른 절로 유명한 여말 선조의 국찰 경기 양주 회암사터(사적 128호)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최대 규모의 온돌시설이 원형에 가깝게 출토됐다. 특히 이 시설은 회암사터 온돌 형태로 세계건축사전에 오른 경남 하동 칠불사의 아자방(亞字房) 온돌과 유사한 구조로 확인돼 고건축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경기도박물관 공동조사단(단장 장경호)은 "온돌시설이 확인된 건물지는 고려말 학자 목은 이색이 작성한 '천보산회암사주기'(天寶山檜巖寺修造記)의 건물배치에 따르면 '서승당'(西僧堂)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승당 건물터는 정면 31.6미터 측면 14.1미터로 아궁이, 온돌시설, 굴뚝, 계단, 출입시설, 기둥자리 등이 발굴됐다. 온돌시설은 출입구로 들어서면 중앙통

로를 사이에 두고 T자 형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구둑이 깔려 있는 독특한 형태. 건물의 양 측면 바깥쪽에는 계단을 만들어 구둑 바깥면 아래쪽으로 아궁이 시설을 만들었다. 아궁이 아궁이에서 장작 불을 때면 연도(연기길)를 따라 방의 구둑을 데운 뒤 굴뚝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보은 방식이다.

현장을 둘러본 조사 자문위원 김동현(동국대) 교수는 "구둑이 바닥에서 약 52센티미터 떠 있어 마치 군데의 나무만 막아서 침상과 유사한 형태의 독특한 온돌로 한국의 전통 온돌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단은 이 건물의 용도를 스님들이 겨울에도 참선할 수 있도록 온돌을 설치한 승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에 스님들이 출입구를 들어서 뒤 신발을 벗고 바닥보다 높은 일(日)자형의 구둑 위에 올라가 좌선했을 것으로 조사단은 보고있다.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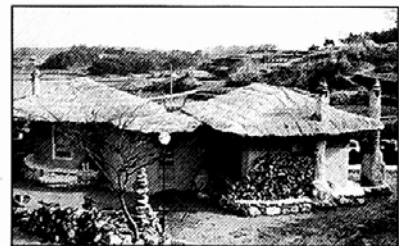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사적 128호) 온돌 시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의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항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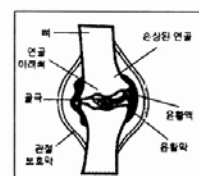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러가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 도 무릎이 추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팽팽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 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가 생체조직에 흡수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회색반발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민간인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3-4개월 지속적인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신자 또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

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나고 있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지금도 우주공간을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또 그렇게 될 예비영혼의 구제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내가 겪었던 지난 삶의 고통과 시련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국 원국학(元國學)의 진인(眞人) 장지상(張志祥)교수로 부터 편정을 받고 있는 저자

이 책을 정독하신 후 믿음성이 가는 독자들께서는 저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자 윤정주는 현재 대구 달성군 기성면과 서울에서 진어(眞如)기(氣)수련원을 열어 맑고 밝은 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어떠한 의식도 필요없이 몇초만에 영가 천도(靈覺透度)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원격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기(氣)능력자의 체학적 삶의 애기.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체형 사례를 엮은 책

도서출판 유림 <값 15,000원>
Tel : 02-736-7148
723-3856

